조계종 내년 예산 1천억 원, 불사 '본격화'

특별회계 713억 원, 전년 대비 155억 원 증액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불기 2563(2019)년 조계종 예산이 처음으로 1000억 원대에 진입했다. 무엇보다 특별회계가 대폭 늘어나면서 각종 불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계종에 따르면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291억 3619만원 △특별회계 713억2100만원이다. 전년대비 일반회계는 8.1%, 특별회계는 154억9650만원이 늘어났다.

일반회계서는 일반직(무기계약직 포함) 종무원 임금 3% 상승과 교역직 종무원 수당 상향 조정, 무기계약직 호봉테이블 일반직과 동일 조정 등에 따른 예산 증액이 눈에 띈다. 그간 중앙종무기관은 2014년부터 임금을 동결한 채 호봉에 따른 자연상승분만 반영해왔다. 또한 당일로 치러지는 법계품서식 대신 법계산림을 봉행하라는 법계위원회 결의에 따라 내년도 3급 법계산림을 위한 예산이 추가됐다.

백년대계본부 예산은 올해 4억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조정했다. 이는 현재 백년대계본부의 조직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관계로 사업 재구성을 예측해 반영한 것이다. 재무부는 2018년 대비 29.6% 증가된 81억3429만원으로 편성됐다. 종교인과세로 인한 소임공제 업무, 전통사찰 부동산 전수조사 사역도 제작 사업 등을 반영했다. 아울러 위례와 세종 등 신도시종교용지 매입비 일부와 차입금 이자를 납부하기 위한 타회계 전출금이 대폭 늘었다. 사업부는 사찰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익사업 연구기획으로 전년대비 60.8%가 늘어난 876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위례·세종 종교용지 매입비
서울 내 토지 매입 계획 등
각종 불사에 예산 확대 편성
표준불교성전 편찬기금 책정

특별회계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2018년 78억5200만원이던 시설 특별회계가 185억 원으로 100억 원 가량이 대폭 확대된 점이다. 조계종은 이 예산을 바탕으로 서울 용산구 토지와 남산 한옥마을 충정사 매입에 나설 계획이다. 미군기지 이전 개발 등에 따른 거점포교 일환이다.

이에 대해 윤승환 기획차장은 "두 곳 모두 종단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매입 계획을 세웠다. 무엇보다 도심포교를 위한 거점 마련 목적이 가장 크다"며 "서울시내 미약한 불교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승려복지 특별회계 약 22억 원, 총본산성역화 특별회계 약 20억 원, 신도시시설건립 특별회계 약 10억 원이 증액됐다. 반면 본지점 특별회계와 승려연수교육 특별회계는 각각 14억3520만 원, 9660만원이 줄어들었다.

조계종은 내년도 예산에 '종단표준불교성전 편찬기금'을 신규로 편성했다. 예산은 1억8300만원. 전출된 1억33000만 원과 희사금 5000만원이며, 이 사업은 2020년까지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성보환수를 위해 마련한 대출금 상환을 위해 내년도 성보환수기금은 3억8490만 원 감액한 8억4010만원으로 책정됐다.

한편 이 같은 예산안은 11월 9일 개원하는 조계종 제213회 정기회서 최종 확정된다.

승가학원 이사장 직무대행에 법산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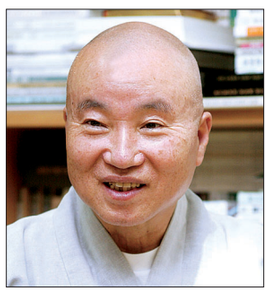
제115차 이사회, 총장 성문 스님 의원면직 인정

현재 공석인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장 직무대행에 법산 스님〈사진〉이 선임됐다.

승가학원은 11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115차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사장 직무대행 선임을 비롯해 △임원 선임 △어린이집 재위탁 승인 △총장 의원면직(사직)에 관한 확인 등의 안건을 다뤘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조계종 前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퇴진으로 공석이 된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법산 스님을 선임했다. 법산 스님의 직무대행 체재는 현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이사직에 대한 교육청 인가가 날 때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승가학원 법인 정관에 따르면 이사 정원 15명 중 총무원장, 교육원장, 종회의장, 중앙승가대 총장 등 8명은 당연직 이사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승가대 총장 성문 스님의 의원면직에 대해 이사회는 '의원면직이 맞다'고 확인했다. 성문 스님은 지난 8월 9일 조계종 총무부장 임명을 위해 총장을 사임했다가 하루 만에 총무부장직에 사의를 표하고 총장으로 복귀해 논란이 됐다.

성문 스님의 의원면직이 인정됨에 따라 중앙승가대는 총장 대행 체재로 전환됐으며, 정관에 따라 교학처장인 김응철 불교사회학부 교수가 총장 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개방형 이사로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 스님과 기획실장 오심 스님을 선임했으며, 안암어린이집을 재수탁하기로 결정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진각종 집행부 2기 구성
총무 관명·기획 덕운 정사

진각종이 총무부장 등 부실장 인사를 통해 제30대 집행부 2기를 구성했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는 11월 1일 통리원장 접견실에서 통리원과 교육원 부실장 등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총무부장 겸 진각대학원 교학처장은 관명 정사(관음심인당 주교), 교무부장은 법경 정사(남부심인당 주교), 기획실장은 덕운 정사(유가심인당 주교), 교법연구실장은 수각 정사(밀각심인당 주교), 교무국장은 효광 정사(행대심인당 주교)가 임명됐다.

윤호섭 기자

"고속도로 사찰표지판, 국토부와 협의 중"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서 진행경과 보고

약 1년 전 국토부가 고속도로 표지판에 표기된 사찰과 4대강 보(洑) 등 지역명소를 삭제하려다 불교계 반발에 잠정중단한 가운데, 현재 표기 기준을 놓고 양측이 의견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11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 2018년 제3차 교구본사주지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고속도로 안내표지판 사찰 표기 관련 진행경과를 보고했다.

조계종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세계문화유산이거나 국보를 보유한 고속도로IC 반경 15㎞ 이내 사찰을 표기하는 것을 종단에 제안했다.

여기에 조계종은 국가지정문화재 5건 이상 보유한 사찰도 포함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지만 현재 해당 경우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최종 결과를 도출할 전망이다.

회의서는 이뿐만 아니라 △제36대 총무원장 취임법회(11/13) 계획 △불기 2563(2019)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약 291억 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관련 대응경과 △포교원 마음거울 108앱 5부작 개발 보급 현황 등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종단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각 기관과 부서별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예산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했다"며 "어려운 고비를 넘겨온 종단에 가장 필요한 건 화합과 혁신이다. 종단 운영에 교구본사의 관심과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염불로 이고득락 합시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누구든지 관세음보살을 일심칭명 염불하면 현세의 어떤 발원도 성취한다고 했습니다.

아미타경에서는 아미타불을 일심칭명 염불삼매하면 어떤 죄업도 소멸되어 금색광명으로 극락세계에 왕생한다고 했습니다.

염불은 참선과 더불어 불교의 중요한 수행방법입니다. 근기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아무데서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염불의 장점인데, 하근기의 타력신앙이라고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참선삼매에 들 듯 염불삼매에 들어 번뇌망상을 소멸하고 고통을 여읜 그 자리가 염불의 목적인 현세의 이고(離苦)이며 왕생이며 열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효, 지눌, 나옹, 보우 스님 등 선종의 고승들은 염불을 권장했습니다.

*신라시대에는 미타염불신앙이 보편화되어 집집마다 염불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거리에서는 가난하고 무지한 이들이 춤을 추며 염불을 했습니다. 원효 스님이 어려운 교학보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염불 수행법을 널리 전파하면서 민중이 극락왕생의 꿈을 갖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염불방법은 다양하지만 주로 칭명염불을 합니다. 생각을 일념으로 모아 간절히 불보살의 명호를 끊임없이 불러 '나'와 하나되게 하는 것이 칭명염불입니다. 염불신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건강해야 원(願)이 청정하고 조건없는 비움의 염불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욕심이 담긴 소원을 비는 자기중심적 염불은 줄이고 비워야 할 자아를 오히려 확장하는 기복입니다. 행동과 말과 생각이 청정해야 공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염불은 참 성품을 지키는 깨달음입니다. 부처님이 부처님을 품은 진여염불에 이르면 저절로 텅빈 것임을 알아 큰 지혜가 밝고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분명하고 명백해 집니다.

염불의 공덕은 가피로 나타납니다. 가피는 집착을 내려 놓은 곳, 무량수 무량광의 환하게 밝은 곳에서 이루어 집니다.

*염불수행의 가피를 타력이라고 부정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불교의 의식 자체가 염불이고, 이 세상의 모든 관계가 타력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염불, 참선, 교학은 달(여래)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피안으로 가기 위한 뗏목입니다. 달을 보았고 피안에 다달으면 손가락도 뗏목도 자력으로 내려 놓습니다.

산승은 '원효 스님이 왜 염불신앙을 민중에게 심었는가'를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한국불교학회 회장직을 퇴임하면서 '성운학술상'을 제정했습니다. 학문적 연구를 뒷받침하여 염불 수행을 장려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불교 대중화를 위한 불사인데 산승의 일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불교신도가 줄고 있습니다. 민중에게 현세의 이고득락과 극락왕생의 꿈을 심어준 원효 스님의 염불대중화 운동이 이 시대에 다시 꽃피길 발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염불독송-영혼을 깨우는 소리 그림 · 조향숙

선종의 고승들 염불권장
조건없는 비움서 가피나와
염불장려 대중화 위해
'성운학술상' 연구 뒷받침



(사)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은 불조의 혜명에 굳건히 의지하고 현재 봉착한 한국불교의 위기를 진단하여 종파의 분열과 무너진 법계질서를 바로잡아 새로운 승풍을 진작하여 일불제자의 승가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통한 한국불교의 중흥을 목표로 하는 창종의 변을 제방에 고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정진의 길에 함께 할 제방의 큰스님들과 법사님을 모십니다.

종단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사업
- 장례문화연구 및 납골당 운영사업
- 승려등 수행자의 복지사업

승 정 원 장 월해 총 무 원 장 법천당 청운
감 찰 원 장 성호 종 회 의 장 법륜 호 법 원 장 해월
포 교 원 장 덕해 교 육 원 장 영호 규 정 원 장 혜성
감 찰 부 장 경오 호 법 부 장 문경 포 교 부 장 장문
규 정 부 장 성철
서울교구원장 법혜 대전교구원장 수진 충남교구원장 혜성
울산교구원장 정오 부산교구원장 법진 경남교구원장 불해
경북교구원장 천호

한마음 108종도 일동

본 종은 종도화합의 종풍을 확립하고자 상생을 위한 상호협의를 종무행정의 기본으로 삼고자 합니다.

본 종단은 문화관광부 허가 제 2017-7호. 법인등록 194621-0000530으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한마음조계종에 대한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여주신 제방의 대덕 큰스님이하 대중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는 종단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도모집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내 외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과 간부스님에 한하여 추대장 및 위촉장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개인 사암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 총 본 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
■ 서울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808호
휴대전화 011-870-0021